

은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 형태를 요구합니다. ... 이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각자의 권리를 아는 동시에 그 필연적 상호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의무의 자각과 실천은 특히 자기 절제와 책임의 수락과 개인과 단체에 제시된 자유 사용의 한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분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증대되며, 온전한 인간 증진을 위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거부될 때, 공동선 추구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진리의 힘에 바탕을 두는 인내로운 노력은 연민과 창의적 연대를 위한 더 큰 역량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해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로마 5:6-11 참조).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데에 온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가치들을 전하고 도덕적 가르침과 사회 활동과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계속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고 평화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갑니다.

### 3 형제적 친교 안에서 이루는 화해의 여정인 평화

성경은 특히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민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를 인격체로, 하느님의 자녀로,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시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약속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의 길을 선택할 때에만, 우리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희망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려주는 다음의 복음 구절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1-22) 이 화해의 여정은, 용서하는 힘과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볼 역량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발견하려는 초대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힐 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더욱 커집니다. 사회 분야에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나 경제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화의 문제는 공동체 생활의 모든 차원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의로운 경제 체계를 이룩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참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베네딕토 16세께서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밝히신 그대로입니다. “저개발을 척결하려면, 교화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와 공공 복지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무상성과 친교에 묶을 할애하는 경제 활동 형태에 점진적으로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진리 안의 사랑’ 39항)

### 4 생태적 회심의 여정인 평화

“우리의 원칙들을 잘못 이해하여 종종 자연을 착취하거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횡포, 또는 전쟁과 불의와 폭력을 정당화하여 왔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지혜의 보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한 적개심과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 자원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감행한 결과도 마주합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 공동선, 자연에 대한 고려 없이 목전의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천연 자원을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열린 ‘범 아마존 지역에 관한 주교대의회’의 특별 회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와 땅, 과거와 현재, 경험과 희망의 평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추구합니다. 이 화해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의 집인

이 세상에 대한 경청과 관상도 요청합니다. 실제로, 천연 자원과 다양한 형태의 생명과 지구는 우리가 “일구고 돌보도록”(창세 2:15)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를 일구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고방식과 시각을 바꾸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반영하는 피조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동기와 새로운 길을 발견하여,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받아 함께 나누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지속적인 변형과 인류 가족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촉진하는 사회의 조건과 형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생태적 회심은 창조주의 너그러움을 생각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셨고 기쁨과 절제로 그것을 공유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회심은 관계들의 변화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 풍요롭고 다양한 피조물, 그리고 모든 생명의 기원이며 원천이신 창조주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태적 회심은 “예수님과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요구합니다.

### 5 우리는 희망하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화해의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는 평화의 가능성을 믿고 다른 이들도 우리만큼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동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유롭게 해 주고 무한하며 무상으로 주어지고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흔히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되찾은 아들의 아버지처럼(루카 15:11-24 참조),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련한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적 만남의 문화는 갈등의 문화를 타파합니다. 모든 만남을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이 주는 기회이며 선물이 되게 합니다. 형제적 만남의 문화는 우리의 좁은 지평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보편적 형제애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여정에서, 세례 받은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해의 성사로 힘을 얻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는 교회의 이 성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골로 1:20) 화해의 성사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웃을 향해서든 피조물을 향해서든 모든 폭력 행위를 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자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끄시어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장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평화의 하느님,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평화의 군왕의 어머니이시며 지상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화해의 여정으로 가는 모든 걸음마다 저희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그들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과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게 되기를 빕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